

## 북한 통신대학의 역사: 회귀의 반복과 이중적 통치성

박민주(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논문요약

이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기반하여 북한 통신대학의 제도적 전개와 반복적 회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1948년 도입된 통신대학은 노동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운영되어 왔으나, 자율적 학습이라는 표면적 형식과 달리 반복적으로 '현지학습반' 체제로 회귀하는 양태를 보인다. 기술-사회 적정성이 낮은 맥락에서 통신대학이 보이는 회귀는 제도 실패의 결과라기보다, 통치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통신대학은 통치성의 이중구도가 매우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자율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소략한 반면 노동자-학생 통제가 노골적으로 강조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통신대학의 외피는 학습자 자율에 주목하는 근대 교육제도지만, 그 내피는 통치력 유지를 위한 기술로서 지난한 역사를 구성해왔다. 코로나 이후 등장한 2차 회귀 현상은, 향후 통신대학(원격대학)이 자율성보다 타율성을 강화하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북한, 통신대학, 이중적 통치성, 회귀, 현지학습반, 원격대학



## I. 서론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시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정치사상 교육의 강도를 높이고자, 노동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일하면서 배우는 체계’)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인 통신대학은 학생이 교재 자습을 위주로 하되 연1-2차례, 10일 안팎으로 대학에 등교하는 제도이다. 법적 강제사항인 의무교육과 달리, 통신대학은 학습자의 선택에 맡기는 자율성이 훨씬 크다.

북한의 통신대학은 1948년 출범한 이후 1970년대의 ‘현지학습반’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었다가, 2010년대 이후 최근 컴퓨터와 인트라넷을 활용한 원격대학(2010년대 이후)으로 변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트라넷 기반의 원격대학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부의 부정적 소식은 거의 다루지 않는 관영매체 『로동신문』조차 원격대학이 노동자들의 비용 및 학업 수준 등의 현실적 조건과 맞지 않아 일부에서 1970년대의 ‘현지학습반’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sup> 북한 통신대학은 왜 이처럼 반복적으로 과거의 학습 형식으로 회귀하는가? 이러한 회귀는 단순한 제도 실패인가, 혹은 통치 전략의 일환인가?

이 연구는 북한 통신대학의 역사를 교육의 확장과 기술 진보의 과정으로 보았던 선행연구를 확장한다.<sup>2)</sup> 통신대학의 역사는 노동자-학생과 그들이 처한 조건, 국가의 통치 목적, 제도의 작동 가능성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조율되는 긴장과 교섭의 산물로서 북한적 교육-통치의 연계방식을 보여주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북한식 회귀의 반복이 통치력 유지와 연결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권위주의 맥락을 공유하는 중국 사례와 비교대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통신대학을 둘러싼 통치와

1) “기술력강화에서 증시한 현지학습반.” 『로동신문』, 2024년 2월 4일.

2) 북한 통신대학(원격대학)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 두 편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김지수, “북한 김정은 정권기 원격교육 현황 분석: 고등교육 수준의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Vol. 19, No. 4, 2023 pp. 32-56; 김지수, “북한의 성인대상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을 통해 드러난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Vol. 5, No. 2, 2009, pp. 183~206.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긴장과 균열을 당국이 흡수·재조정하는 대응 방식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 II. 이론적 검토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히 억압·규율만이 아니라 ‘자유’의 형식 안에 지식, 공간, 통계, 규범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삶을 조직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이 자유란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으로서 “경제와 인구관리에 속하는 갖가지 메커니즘, 그야말로 국력증강을 기능으로 하는 메커니즘”이며, “이 기획은 이제 여러 다른 제도와 메커니즘 내에서 구체화”된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통신대학은 의무교육이나 여타의 노동자 교육제도와 달리 자율성 혹은 자유의 외피를 상당 부분 취하고 있다. 통신대학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며 경험 기반 학습, 과업 중심,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sup>4)</sup>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아동 교육과 구별되는 성인교육의 특성을 지닌다. 북한의 통신대학은 ‘노동자 훈련·사상교육·생산성 증대·통치력 강화’ 등의 통치 기제로서 설계되었다.<sup>5)</sup> 다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발성과 실천 조건(시공간, 동기, 접근성, 교육에 대한 신뢰 등)이 일정 수준 전제되어야만 한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자발성을 촉진하고 그 실천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통치기획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고도의 통치성이다.

푸코가 제시한 권력의 계보적 전개는 흔히 규율권력(disciplinary

3)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전혜라·조성은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서울: 난장, 2011, pp. 478~479.

4) Knowles, 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Cambridge, 1980.

5) 통신대학을 포함하여, 북한 노동인력 개발체계의 특성은 당 및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성, 생산과 교육의 결합, 기술교육과 노동규율 훈련의 결합, 학교와 생산현장 연계 등으로 집약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조정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pp.81~136.

power), 생명권력(biopower), 통치성으로 구분되며, 이는 권력의 장치가 단순한 억압에서 인구관리와 삶의 조직화로 이행해왔음을 시사한다.<sup>6)</sup> 푸코적 해석은 자유주의 국가 이상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는데, 권력의 목적과 개인의 행위 목적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고도의 통치성과 달리,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의 조건이 형식적으로만 주어지고, 실질적으로는 타율적 규율성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주민의 삶을 조직하려 한다.<sup>7)</sup> 전체주의 국가 역시 단순한 억압이나 감시를 넘어, 학습자-노동자-주민을 특정한 규범적 주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술과 행정적 논리를 동원하는 것이다. 이때 권력은 역사적 연속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와 맥락에 따라 병존하거나 중첩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억압과 자율, 규율과 유연성처럼 상반되는 요소들이 동시에 공존하며 작동하는 혼성적 통치구조, 즉 이중적 통치성(dual governmentality)이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이 논문에서 ‘이중적 통치성’이란,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자율성·자기조절·자기주도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규율, 구조적 통제, 집단주의적 감시가 동시에 작동하는 혼종적 통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푸코의 ‘통치성’이 민주주의 통치에서 일말의 자유주의 약화를 의미한다면, ‘이중적 통치성’이란 형식적 측면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자유주의 활용에 해당한다.

이런 이해 위에서 북한 사례를 본다면, 통신대학은 북한당국이 지식과 그 구성과정을 통해 노동자-학생의 삶을 조직하려는 권력 기획이다. 그러나 통치의 기획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통치가 학습자의 특성과 조건, 사회적 적정성을 무시할 경우 기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다만 서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통치기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북한당국은 실패를 인지했을 때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근대(현대)화를 표방하는 정책이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과거의 익숙한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도와 기술

6) Dean, Mitchell,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2010.

7) Dean, Mitchell, “The Concept of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Today.” *Global Society*, Vol. 39, No. 1, 2025, pp.14~15, DOI: 10.1080/13600826.2024.2362739.

8) Dean, M, Ibid.

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기술-사회 적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기술-사회 적정성(Technology-Society Appropriateness)이란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 대상 사회의 실제 조건(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자원적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up>9)</sup> 설계된 제도나 기술이 대상 사회의 역량, 문화, 자원 기반과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의 기능 부전이 발생한다. 가령, 온라인 교육에서 성인 학습자들은 온라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때문에 학습자들은 실시간 피드백, 대면적 지지, 업무 연계성 높은 콘텐츠 등의 조건이 갖춰진 복합형(Blended) 학습을 선호하는데, 이는 노동자 학습자가 처한 현실과 부합하기 때문이다.<sup>10)</sup> 따라서 통치는 기술적 진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적정성 사이의 괴리를 메우거나 하나를 선택하는 등의 ‘보완 기제’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때문에 통치는 기획을 구체화하는 메커니즘(제도) 일부를 조정하며 이중적 통치성을 표출한다.

이 연구는 북한당국이 통치적 기획(생산성 향상, 현장형 기술-노동인재 양성, 정치사상교육 등)의 추진 기제로 통신대학을 설계·운영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과거 방식을 덧입히거나 그대로 가져오는 일말의 회귀적 선택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물론, 통신대학의 역사에는 여러 장단점이 배태되어 있다. 다만, 통신대학은 다른 교육체계보다 학습자의 자율성이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므로, 면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Heeks, R., "Information Systems and Developing Countries: Failure, Success and Local Improvisations."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8, No. 2, 2002, pp. 101~112. <https://doi.org/10.1080/01972240290075039>.

10) Zhang, S., "Chinese-as-a-foreign-language learners'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flipped/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A descriptive study." *Studies in Self-Access Learning Journal*, Vol. 10, No. 2, 2019, pp. 181~204. <https://doi.org/10.37237/100205>.

### Ⅲ. 제도 형성과 확산 (1948~1970년대 초)

통신대학은 초기 북한이 직면했던 교육-노동력-간부양성 등의 복합적 과제 해결을 위한 통치의 기획이었다. 해방 직후 이북지역에는 대학이 전무했기 때문에 교원·기술자·행정 간부의 수요는 폭증했고, 특히 인민학교(초등학교) 교원 상당수가 중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현업을 포기하고 교육을 시키기에는 경제발전도 급했으므로 북한당국은 일과 학업을 양립하도록 야간대학과 함께 통신대학을 주간대학에 병설하도록 했다.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배우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이 있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사업과 민주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건에서 ... 교육일군들과 물질적토대가 비교적 잘 꾸려진 주간대학들에 야간대학과 통신대학을 병설하는 방법으로<sup>11)</sup>

북한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소련의 ‘Rabfak(Рабочий факультет, 노동자전문학부)’ 모델을 본보기로 삼았다. 소련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학 부설 기관에 т: Rabfak를 설치하였고<sup>12)</sup> 1946년부터 중등학교, 기술학교, 대학교급 ‘통신대학(원거리 교육, заочная школа)’을 시행하였다.<sup>13)14)</sup> 대다수가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던 일제강점기가 막 종료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지식에 대한 권리” 회복의 의미로 ‘선진’ 소련 사례를 제시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통신대학 입학에 적극 권장했다.<sup>15)</sup>

11) 김창호, 『조선교육사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 203~204.

12) 소련 노동자학부는 대학 예비과정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통신대학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학부를 대학에 설치했다는 점 등에서 사회주의권 전역의 성인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잉그리드 미테, “소련형 대학의 노동자학부.” 『아시아리뷰』, 제7권 제1호, 2017, p. 98.

13) 김상현, “소련초기 교육제도변화의 특징 연구: 혁명 후~스탈린 집권말기까지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2016, p. 192.

14) 소련은 귀족과 상류층 중심의 고학력자 구성을 전환하고자 속성 대학예비교육 목적으로 노동자 학부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박원용, “소련 고등교육 체제의 기본구조: 1920~1930년대.” 『역사문화연구』 제60권, 2016, p. 255.

1년에 두번씩 모스크바로 시험치러간다. 여름이면 시험후에 있는 기본학습 ... 학년 초에 이 통신대학생들에게 학과계획과 강령과 방법적 지시들을 보내준다. ... 노동자, 교원, 군무자 ... 통신대학생들은 1년에 불과 2백 루블리의 학비밖에 물지 않는다.<sup>16)</sup>

이에 따라, 1948년 8월부터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1948년 기준 총 4개 통신사범·교원대학에 4,267명이 재학하였다.<sup>17)</sup> 통신교원대학은 인민학교(초등학교)급으로 2년제, 통신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급 교원을 재교육하였다. 모든 노동자-학생은 교재로 자학습하되, 연 1-2회 10일씩 등교 수업을 했다. 통신사범대학은 학생을 교육하는 원리인 교육을 배우도록 했고, 인민학교 대비 이공계 과목을 강화하였다(표 참조).

〈표 1〉 통신대학의 창립 시 학과 구성

통신대학	창립	학과
김일성종합대학 부속 통신사범대학	1948.8	교육학과, 역사학과, 지리학과, 국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평양사범대학 부속 통신교원대학	1948.9	역사과, 지리과, 국문과, 로어과, 수물과, 화학과
청진교원대학 부속 통신교원대학, 신의주교원대학 부속 통신교원대학	1948.9	역사과, 지리과, 조문과, 로어과, 수물과, 화학과
원산교원대학 부속 통신교원대학	1950.	역사과, 지리과, 조문과, 로어과, 수물과, 화학과

출처: 김창호, 『조선교육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260.

1950년대부터는 통신대학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해방 직후 이북지역에는 일제가 남긴 공장과 발전소가 있었지만 이를 가동할 마땅한 기술인력이 부족했다. 대학 “졸업생들로 충당하자면 4-5년이라는 시일이 걸려” 시급하게 1948년 9월 평양공업대학과 흥남공업대학에 “2년제 산간학부(산업간부

15) “위대한 권리.” 『쏘베트 신보』, 1949년 3월 3일.

16) “통신대학.” 『쏘베트 신보』, 1949년 3월 3일.

17) 김창호, 같은 책, p. 205.

학부)”를 설치했을 정도였다.<sup>18)</sup> 이에 따라, 1953년 김책공업대학, 흥남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에 통신기술대학부가 설치되어 “근로청년들”에게 “일하면서 고등기술교육을” 받아 고급기술간부가 될 것이 요청되었다.<sup>19)</sup> 김책공업대학 약 9개, 흥남공업대학 2개, 원산농업대학 4개 전공이 각 통신대학기술학부에 설치되었다.<sup>20)</sup> 실무자 양성을 위한 전공 다양화, 세분화와 함께 통신수의사범대학, 통신화학공업대학 등 특수 전공 인재양성도 시작되었다.

1960년에는 신규통신대학만 20개가<sup>21)</sup> 신설되어 총 30개 이상의 통신대학이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16개 전공, 김책공업대학은 1955년 대비 6개에서 19개 전공(자동화, 공업경제, 지질공학, 측량, 기계제작, 용접, 금속재료, 선박 건조, 발전 및 송배전, 통신기계제작 등)으로 전공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61년 7만 8천여명, 1962년 13만 3천여명이, 1963년에는 대학생 총수의 40%가 통신대학에 재학했다.<sup>22)</sup>

통신대학은 총련으로도 확장되었다. 1962년 재일본조선인통신대학협회가 결성되고<sup>23)</sup> 1965년에는 조선대학 통신학부 1회, 1967년 3회, 1968년 4회 졸업식이 개최되어 교육성 및 각종 사범 및 교원대학에서 축전을 발송했다.<sup>24)</sup> 이는 통신대학에 대한 북한당국의 자신감과 효용체감이 컸음을 보여 준다. 총련계 학생들 역시 일본에서 여러 구조적 차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총련통신대학은 ‘권리보장’의 의미로 선전되었다.

18) 김창호, 위의 책, p. 209.

19) “기술대학들에 통신 기술학부신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7일.

20) 김책공대는 공장기계, 전기공학, 건축, 교량건설, 야금, 가공, 채광, 선광, 지질 등의 전공이 설치되었다. “1955-1956학년도 각 통신대학학생 모집요강.” 『로동신문』 1955년 6월 1일.

21) 이외에도 청진광산대학, 평양기계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평양수리대학, 함흥동력대학, 혜산림업대학, 평양경공업대학, 원산수산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운수대학, 평양체신대학, 평양상업대학, 강계수의축산대학, 원산농업대학, 평양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해주의학대학, 국제관계대학, 원산경제대학, 평양농업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평양문학대학 등이 해당한다. “1960-1961학년도 각 대학 본학부의 야간에 수업하는 학급 및 통신학부 신입생 추가모집요강.” 『민주조선』, 1960년 10월 22일.

22) 안중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3, p. 95.

23) “재일본조선인통신대학협회결성 열둬.” 『민주조선』, 1973년 4월 21일.

24) “보통교육성과 산하대학들에서 조선대학 통신학부 제3회 졸업식을 축하.” 『로동신문』, 1967년 8월 19일.; “우리나라 교육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조선대학교 통신학부 제4회 졸업식을 열렬히 축하.” 『로동신문』, 1968년 8월 14일.

통신대학 재학생이 급증하면서 북한당국의 언설은, 1940년대의 '권리'론을 넘어서 그에 대한 '보은'으로 변모했다. 노동자들의 통신대학 참여는 곧 충성의 증표로 의미화되었다. 또한 초반에는 주로 참여를 강조했던 언설이, 이제는 압축적으로 시간쓰기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으로 통신대학 참여율 자체는 늘어났지만, 일-학업 병행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학생들 역시 증가했던 것이다.

룡평협동농장 기사장 리리섭 동무는 ... 원산농업대학 「통신」3학년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당년 43세인 리섭동무는 일제시기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서 서당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채 ... 자기에게 땅을 주었고 삶의 보람을 안겨 준 은혜로운 당을 위해 ... 협동농장이 되면서부터 그는 많은 기술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고 ... 힘과 열성만으로는 안된다. 당과 혁명에 충실하자면 배워야... 남보다 적게 자고 휴식시간과 토막시간을 몽땅 바쳐 하루 5시간씩 학습<sup>25)</sup>

인용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 통신대학은 제도 안팎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첫째, 통신대학이 전제한 자학습은 비현실적 설계로, 시공간부터 기초 역량, 학업 지속성 모두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인 학습자들은 의지만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북한당국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가장하여 매우 높은 자기관리 역량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기초 지식 부족', '시간 부족' 등의 토로가 빈발하였다.<sup>26)</sup> 농장은 농번기 출석률이 급감하고, 생산 현장도 통신대학을 꺼려서 자퇴와 제적이 반복되었다.<sup>27)</sup>

둘째, 통신대학 운영 자체가 미비하여 노동자-학생이 의지가 있어도 학업조건을 보장하지 못했다. 일부 교원들은 대학 중퇴 상태였고 통신대학을 방기했으며, 대면수업은 교재 배포와 과제 전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sup>28)</sup> 등교수업은 교원의 자의적 조정·지각·결강이 빈번했고, 교재의 질이 낮고 배포가 지연되는

25) 전봉운, "학습은 첫째가는 혁명임무." 『로동신문』, 1965년 10월 22일.

26) 전봉운, 위의 글.

27) 리영환, 『조선교육사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p. 73-76.

28) 리동휘, "단평: 교원자질향상을 위하여 통신사범교육사업을 일층 강화하자." 『교원신문』, 1959년 12월 12일.

등 지원체계는 미비했다.<sup>29)</sup> 앞선 인용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리리섭'이 통신대학 교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부재하며, 오히려 지나가는 주간 대학생을 붙잡고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등장할 정도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북한당국은 1950년대 말~1960년대 중반에 걸쳐 일정 부분 개선을 시도하였다. 입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추천서·이력서·보증서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하여 '헌신성' 있는 인물을 선별하려 했으며, 입학 초기 등교수업 불참 시 입학취소 등 학업 규율을 강화했다.<sup>30)</sup> 또한 교원에게 실험·실습 기반 강의, 사상성 강화, 출석을 제고를 독려하고, 학습노트와 검열해답서를 활용한 평가체계를 강조하였다.<sup>31)</sup> 그러나 학습자의 의지와 자학습만 강조할 뿐, 구조적 제약에 대한 근본적 완화조치는 부재했다. 북한당국은 통신대학에 '자기 권리를 찾는 주체적 학습자'라는 서사를 투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실무자 양성이 시급했기 때문에 계속 학습자들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였다. 자발적 보은이라는 논리가 보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강제적으로 학습자들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긴장은 결국 출석을 저조하는 명백한 현상으로 표출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당국은 '현지 학습반' 도입이라는 대대적 제도수정을 시행한다.

#### IV. 현지학습반의 도입과 1차 회귀 (1970년대 초중반~1990년대)

1970년대 초중반, 북한당국은 출석율이 극히 저조한 농촌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대폭 축소했다. 대신 농한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매일 밤 교원이 현장에 찾아가 학습반 단위로 2시간씩 현지강의를 하도록 '야학식 학습반'을 도입하였다.

29) 김상철, "단평: 통신대학사업에서 제도와 규율을 확립하자." 『로동신문』, 1957년 10월 6일.

30) "1956-1957학년도 김책공업대학 통신학부 학생 모집요강." 『로동신문』, 1956년 4월 1일.

31) "각 통신대학들에서 하기 등교수업." 『교원신문』, 1956년 6월 23일.

주체 62(1973)년 1월 15일 황해북도 봉산군 청계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사리원농업대학사업을 료해하시고 등교식이 위주로 되었던 ... 농업대학 통신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동안 매일밤 2시간씩 현지강의를 하되 하루는 강의하고 하루는 집체복습시키는 방법 ... 야학식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로 전환<sup>32)</sup>

‘학습반’은 “거주지역별 통학구역” 기준의 학습 단위이며, 야학은 일제강점기 성인교육의 한 수단이었다.<sup>33)</sup> 그러므로 우편이라는 기술체계와 효율성, 학생 자율성에 기반했던 통신대학에서 현지학습반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이며, 그만큼 노동자-학생들의 통신대학 참여가 원활할 수 없었고 통치의 기획 역시 적지 않은 비현실성을 담지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1967년부터 독재체제가 확립되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되며 권력의 이념적 기반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학습반은 교원이 마을 선전실·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 방문하여 야간 수업과 복습지도를 매일 번갈아 하는 형태로, 교원은 일정 간격을 두고 방문하여 학생의 자학습 시간을 보장했고<sup>34)</sup> 생산현장에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농촌에서 시작된 현지학습반은 대다수 기술대학으로 확산되어 등교방식과 병행되었다. 1979년부터 평양철도대학 통신학부에서 강의실, 교무실, 교과서 및 참고서 보관실, 교편물실, 식당, 침실 등을 갖춘 통신대학차를 만들었다. 교원들은 신의주, 강계, 혜산, 함흥, 사리원, 백암, 이천, 봉산 등의 역에서 철도 노동자-학생들을 교대시간에 맞춰 교육시켰다.<sup>35)36)</sup> 수산 어로공들은

32) 서광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발전력사.” 2016년 1월 23일, <http://www.ryongnamsan.edu.kp/univ/ko/research/articles/9de6d14fff9806d4bcd1ef555be766cd>(검색일: 2025.02.18.).

33) 김창호, 『조선교육사3』, p. 287.

34) 안종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pp. 23~30.

35) 1972년 6월부터 평양에서 출발하여 청진, 함흥, 개천, 사리원 등에 가서 20일씩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소개.” 『조선중앙통신』, 1998년 10월 22일.

36) 앞 각주와 달리, 2006년 기사에서는 1972년 6월부터로 소급한다. 북한문헌 특성상 발행이 빠른 면 내용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궤도로 달리는 대학》-통신대학차.” 『조선중앙통신』, 2006년 7월 6일.

교대시간에 작업선에서 통신대학선박으로 이동하여 현지학습반에서 학습과 생산 실습지도를 받았다.<sup>37)</sup>

사범대학과 의학대학은 실습이 중요했던 만큼 학습반 없이 등교체제만 유지하였다. 반면 교원대학은 통학가능한 거리를 기준으로 매월 2-3회 일요일 혹은 일요일 전후 2-3일 간 일요학습반을 설치하여 연평균 30회 수업을 하였다.<sup>38)</sup> 인민학교는 특히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교원 중 “가정부인들과 아이어머니들이 적지 않”아 일가정 양립 문제로 통신대학교육이 원활하지 못했다.<sup>39)</sup> 실제 재학생 수 대비 자격 교원(대졸) 수를 계상해보면, 중도탈락율은 30%이상으로 추정된다. 통신대학 4곳이 개교한 1948년 4,267명<sup>40)</sup>이 재학(입학)했으므로 추가 개교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6,000명이 입학했다고 가정하면, 26년간 최소 15만명이 졸업해야 한다. 그러나 1954년-1980년 사이에 10만여명만 자격교원이 된 것이다.<sup>41)</sup>

야학식 학습반은 회귀했지만 이처럼 유의미한 혁신적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한계는 잔존했다. 노동자-학생들의 노동시간이 축소되지 않았고 생산 현장은 변수가 상존했다. 교원이 현지에 방문해도 학습결손이 큰 학생 여럿을 혼자 지도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야학식 학습반에 나간 교원이 아예 상주하며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을 지도하도록 했고 주간학생 등을 동원하여 학습 도우미를 하도록 했다. 가령, 혜산농림대학은 야학식 학습반을 운영하면서 교원이 직접 수업 교구를 가져가 현장 강의실을 설치하고<sup>42)</sup> 낮에는 연구와 수업준비를, 밤에는 강의를 했다. 신의주농업대학 등에서는 주간학생을 학습반에 데려가 전공실습을 하며 통신학생의 학습 도우미를 하도록 했다.<sup>43)</sup> 실력 격차 탓에, 주간학생이 통신학생에게 “교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념이<sup>44)</sup>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사와 각 직장 내

37) “소개.” 『조선중앙통신』.

38) 안중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p. 27.

39) 안중현, 위의 책, p. 28.

40) 김창호, 『조선교육사3』, p. 205.

41) 안중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p. 95.

42) “통신대학사업을 강화하여.” 『로동신문』, 1982년 9월 1일.

43) “실정에 맞게 통신대학사업을 강화하여.” 『민주조선』, 1982년 12월 24일.

44) 전봉운, “학습은 첫째가는 혁명임무.”

학습 도우미들도 등장했다. 단천지구광업연합기업소 룡양광산에서는 당일꾼들이 먼저 통신대학과정을 졸업하고 126명의 노동자 전원을 통신대학에 입학시켰다. 장마, 결빙, 이동작업 등의 어려움으로 노동자들의 출석률이 떨어지자 간부들과 교원까지 학업지도와 생산 노동까지 도왔다고 한다.

부문당 비서자신이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굴착기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몰았으며 과외학습을 지도 ... 기사, 기수들이 노동자-학생들의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도와나섰고 보충강의에도 출연, 교원들은 과정안에 예견된 현지통신강의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가 하면 굴착기와 자동차를 같이 운전하면서 과외학습을 지도<sup>45)</sup>

이러한 북한당국의 조치는 사람 간의 감화와 집단주의를 통한 북한식 문제해결 방식으로, 학습자-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교육 수준 합리화, 학습자 노동 유연화, 교육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통신대학이 갖는 '자율성'의 특질은 이 시점에 상당부분 소거되었다.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노동자들은 직장과 작업반에 따라 일괄적으로 학습반에 참여해야만 했고, 이들의 학업은 개인사가 아닌 직장 전체의 과업이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현지학습반' 도입은 자율적 통신대학 모델을 타율적 규율 체제로 전환하는 전략의 전환점이었다. 공장은 출석을 직장에서 직접 감시하고 교원이 현장에 '상주'해 노동자들을 집단 동원함으로써, 자율성의 외피 아래 타율적 통제가 강화되는 '이중적 통치성' 구조를 구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자-학생들은 교육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과정을 전유하기도 했는데, "시험이나 굶때는 식으로 공부"하고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베찌"는<sup>46)</sup> 등 피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행했다. 그러나 모든 '불량한' 태도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으로 강력 통제되었다.<sup>47)</sup> 북한당국은

45) "통신대학의 훌륭한 모범: 단천지구광업연합기업소 룡양광산 금산생 일꾼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1979년 9월 29일.

46) 안중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p. 75.

통신대학과 주간대학 학생 사이의 실력차이를 비난하면서<sup>48)</sup> 대책은 구조적 개선이 아닌 ‘엄격한 학습’만 요구했다. “생산로동에 참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였고 “강의내용이 깊어지자 힘들어”하는 학생이 속출하면서 출석률이 떨어졌다.<sup>49)</sup> 학과목별 과제가 가중되었고<sup>50)</sup>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수행 상황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실력보다 낮게 평가하여 통신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반대로 무원칙하게 높은 점수를 줘자만과 태만을 조장하는 편향을 경계”한다는<sup>51)</sup> 명분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학업을 할 수도, 하지도 않았고 학생 유급에 책임이 있는 교원이 “연356회” “가정방문과 개별교양”을 통해 졸업 요건에 부합하도록 상황을 ‘창조’하는 일이 이어졌다.<sup>52)</sup>

북한당국은 1980년대 통신대학의 보조수단으로 텔레비전 방송대학(1982년 9월 1일)과 오프라인 학습센터 ‘인민대학습당’을 설치하였다. 텔레비전방송대학은 수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과목과 외국어를 담당하는 교양대학과 같은 역할이었다. TV가 있는 공간에 학생들이 집합하여 주3회 17시 30분부터 19시까지 평양 “유능한 강사”의 강의 방송을 시청하는 형태였다.<sup>53)</sup> 1984년에는 인민대학습당이 개원하여 각종 자료 열람 및 추천, 보충 강의, 문답 등으로 학습자의 자학습을 보조하였다.<sup>54)</sup> 또한 과학토론회, 학술 발표회 등을 조직, 개최하고 사서가 “인민경제 주요부문”<sup>55)</sup>에 파견되어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보조적 교육이 필요한 상황적 필요에 의한 조치이나, 북한 특유의 조치는 아니다. 후술할 중국 등의 경우 1970년대부터 라디오와 TV, 오프라인 학습지원을 병행했으므로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47) 안중현, 위의 책.

48)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1978. 10. 01.)”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출판사, 1987, pp. 436~456.

49) 김경무, “통신대학을 이룰처럼 하자.” 『로동신문』, 1985년 5월 3일.

50) 안중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p. 54.

51) 안중현, 같은 책, p. 90.

52) 김경무, “통신대학을 이룰처럼 하자.”

53) 서광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발전력사.”

54) “통신종합대학-인민대학습당.” 『민주조선』, 1984년 10월 19일.

55) 리영환, 『조선교육사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111.

비해 낮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제난에 접어들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텔레비존 방송대학은 “전기사정이 긴장”하여 간부들이 “중단시킬 것을 타산”하는 등<sup>56)</sup>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다.<sup>57)</sup> 인민대학습당 서비스는 당국이 지정한 주요 건설 및 생산 현장, 평양 거주자에게만 사실상 접근가능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현지학습반과 도우미가 필요하여 3대혁명소조가 파견되어 통신대학생의 학습지도를 했다.<sup>58)</sup> 유일한 학습 수단인 교재는 물론 등교 수업 역시 질적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sup>59)</sup> 결국 1990년대 중후반에는 경제난으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다행”인 “난관”상태가 되었다.<sup>60)</sup> 일반적 노동자, 농민, 교원의 참여는 극히 저조해졌고 통신대학은 북한당국에 의한 제대군인 일부의 무리입학 위주로 운영되었다.<sup>61)</sup>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자학습을 강조했던 통신대학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 V. 원격대학 시대, 2차 회귀: 현지학습반의 재도입(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당국은 통신대학 정비를 주문하면서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각종 직관물, 컴퓨터모형건반 등의 직관시연기구들”을 마련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하였다.<sup>62)</sup> 또한 2007년 김책공업대학에 원격교

56) 백영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80년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이끄신 현명한 령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역사, 법률』, Vol. 495, 2015, pp. 61~63.

57) 기존연구는 텔레비존방송대학 개교를 2세대 시작 시점으로 보는데, 북한 실정상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고 통신대학의 보조수단이었기에 세대 구분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김지수, “북한의 성인대상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을 통해 드러난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pp. 183~206.

58) 리순희, “통신대학에서 포착한 주요문제.” 『로동신문』, 1987년 9월 29일.

59) 1980년대 후반 통신대학이 부설된 사범대학에 재학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해주었다.

60) 김철, “훌륭하게 꾸려진 교육 조건.” 『교육신문』, 2001년 10월 11일.

61) “대학이 학생들을 찾아가다.” 『민주조선』, 1991년 7월 13일.

62) 김철, “훌륭하게 꾸려진 교육 조건.”

육센터를 설립하여 1980년대 텔레비존통신대학처럼 통신대학의 보조 수단으로 삼도록 했다. 2010년부터는 김책공대를 필두로 보조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통신대학을 대체하는 원격대학을 운영하였다. 원격대학이 확대되면서 2020년 기준 원격대학 재학생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sup>63)</sup> 원격대학은 그간 통신대학이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음에도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고질적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완화시켰다.

첫째, 노동자-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통신대학은 등교기간이 있고 현지 학습반이라 해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원격대학은 “대학에 가지 않고도 … 임의의 시간에 … 즉시에”<sup>64)</sup> 수강, 자료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응답과 이메일 송수신으로 과거의 우편 활용 서면 응답보다 훨씬 빠른 상호작용을 구현하게 되었다.

둘째, 통신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학습 수행률 저조, 부정행위, 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원격교육에서는 학습 관리 시스템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한 온라인 체계는 과제의 제출 시점과 평가 항목이 세분화 되어 보다 엄격한 평가와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sup>65)</sup> 과제 제출 일정과 분량 준수 여부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도입되었다.

셋째, 전반적 강의의 질이 향상되었다. 통신대학에서는 개별 교원의 역량 차이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유능한 교원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다.<sup>66)</sup> 중앙대학과 평양 소재 대학에서 제작, 녹화, 송출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자체의 질이 훨씬 좋고, 또 교원의 강의가 편집을 거친다는 점에서 보다 정제된 강의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넷째, 전통적 통신대학의 큰 문제 중 하나였던 교재 부족과 지연된 배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대폭 해소되었다. 원래 대학과 교육성에서 교재 제

63) 조영아·이춘근·염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45.

64) “원격교육센터를 새로 내왔다.” 『교육신문』, 2007년 1월 25일.

65) “이동통신망에 의한 우리의 원격교육체계 확립.” 『조선의 오늘』, 2015년 5월 28일.

66) “원격교육센터를 새로 내왔다.”

작 및 보급을 맡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 일부 대학은 제지공장을 운영하고 이를 칭찬받을 정도로 교재 보급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모바일 자료는 교재의 물리적 인쇄와 운송 문제를 해소했고<sup>67)</sup> 영상 강의 및 보조 자료를 활용해 단순한 텍스트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탓에 원격대학은 10년 넘게 확산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대다수가 각자도생하며 통치의 강제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임에도 적지 않은 재학생이 발생했다는 점은 노동자-학생에게 원격대학에 상당한 유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4년부터 두 번째 회귀가 포착된다. 일부 공장 및 기업소에서 원격대학이 아니라 이전 시기 통신대학의 주요 체계인 현지학습반을 재도입하기 시작했다. 생산현장에 대학교원이 직접 방문하고 이런 과거의 방식이 원격대학보다 더 ‘실용적’이라는 언설이 등장했다.<sup>68)</sup>

부령합금철공장에서는 월에 한번씩 직장장들과 작업반장, 당초급일군들의 참가밑에 청진공업대학 현지학습반 성원들의 학습정형이 총화되곤 한다. ...공장에서는 현지학습반 운영에 필요한 교구비품들을 그췌히 갖추고 ... 도소재지에서부터 먼길을 찾아오는 대학교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 몇몇 로동자들이 강의에 빠진 사실을 알게되었다. ...즉시에 그들이 속한 작업반과 직장일군들의 모임이 열리고 이 문제가 심각히 총화되었다.<sup>69)</sup>

사람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고 하면 원격교육체계를 먼저 생각한다. 사업소의 일군들 역시 처음에는 원격교육체계에 종업원들을 망라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속에서 종업원들의 지식수준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현지학습반을 내오는것이 보다 실용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여 사업소에서는 청진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종업원들을 위한 현지학습반을 조직하였다. 그 후의 결과는 일군들의 생각대로 좋았다.<sup>70)</sup>

67) 위의 글.

68) 김일성종합대학이 통신박사원을 운영 중이며 통신군관학교도 가동되고 있다.

69) “류더른 《학부형총회》.” 『로동신문』, 2024년 1월 22일.

현지학습반의 재도입은 그간 학습자 자율성과 ‘프로그램’에 맡겨두었던 교육을 다시 직장과 교원이 현장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은 “현지학습반에 초급일군들을 의무적으로 망라시키고 그들이 학급들을 책임지게” 하거나 집체적으로 “교대별에 따르는 강의시간을 엄격히 정하”도록 규율하기 시작했다.<sup>71)</sup> “한두 강의쯤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종업원들”이 있어도 간부들은 “말없는 교양, 통제”<sup>72)</sup> 만 하거나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sup>73)</sup> 북한당국은 그간의 자학습 중심의 기초를 일부 후퇴하여, 2024년 전후 현지학습반을 재도입했다. 이는 형식적 자율성을 축소하고 전통적(타율적) 규율 메커니즘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중적 통치성이 재강화 된 원인은 원격대학이 노정했던 적지 않은 한계들과 관련이 있다. 첫째, 시장화 이후 다양한 국가 자격증과 졸업증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간부를 꿈꾸지 않는 이상 대다수 주민들에게 대학교육의 특별한 이점이 없다. 아동교육과 대별되는 성인교육의 중요한 유인 중 하나가 현장에 적용하여 현실적, 시의적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학습자는 원격대학을 통해 얻는 직업적,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전에는 집단주의적 분위기의 여파로, 원격대학 도입 초기 역시 열풍처럼 참여율이 높았지만 안착단계에 이르자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사라져 유인이 저조해진 것이다.

둘째, 여전히 ‘자학습’은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이 노동자-학생이 수용하기에 난이도가 높으며 교육자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가령 “교수자와 학생사이 교감이 없이 … 실제 교수를 받는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체로 학습해보기는 거의나 없이 학생위주의 교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한다.<sup>74)</sup> 이는 성인 학습자가 내적 동기, 실천 가능성, 경험 기반 학습을 중시하며, 구조적 지지와 정서적 피드백이 없는 상태

70) “기술력강화에서 중시한 현지학습반.” 『로동신문』 2024년 2월 4일.

71) 위의 글.

72) 위의 글.

73)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로동신문』, 2017년 10월 3일.

74) 우일, “교수자의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자체학습방식이 결합된 원격교수안편성방법.” 『고등교육』, 제212권, 2019, p. 34.

에서는 학습 지속이 어려운 특성을<sup>75)</sup> 간과한 결과다.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학습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보통교육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점, 보통교육 후반기부터는 대학에 진학가능한 10-15%만 학업에 열중하는 점, 2000년대 초반부터 ‘전민군사복무제’ 시행으로 학습 결손이 크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측면들은 원격대학 초기 학습자 유인이었을 확률이 크지만, 10년이 경과하면서 학습 효과 부족이 판명되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통신(원격)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지원을 병행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일반 주민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고 학습망과 병행되는 오프라인 지원 체계가 없다.

셋째, 지역 격차와 학습자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원격대학은 대도시의 공장 및 기업소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직장 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진행된다. 북한당국이 직장 내 설치를 지시하면 따라야 하지만, 개별 단위 입장에서는 “설비와 비품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든다고 주저”할 수밖에 없다.<sup>76)</sup> 컴퓨터 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과학기술보급실이 한달에 한 두번 가는 “참관용, 선전용”인데<sup>77)</sup> 그 물적 기반은 노동자의 헌납으로 마련된다. 게다가 농촌은 많은 경우 원격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2023년 안악군 오국농장 작업반원들은 ‘과학영농’ 요구에 따라 안악농업대학 통신대학에 입학 및 ‘등교’하였다.<sup>78)</sup> 이는 원격교육망에 접속가능한 지역 거점이 직장 근처에 부재하여 근처 대학으로 노동자-학생들이 직접 등교했음을 뜻한다. 최근 이동통신망으로 원격교육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가의 모바일 기기는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비용 문제는 거시적 경제환경 변화와도 연관된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을 보수화하였고,<sup>79)</sup> 코로나 기간 양정을<sup>80)</sup> 비롯하여

75) Knowles, 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76) 리광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주체의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p. 164~167.

77) 허일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중시하여야 할 문제.” 『로동신문』, 2024년 7월 1일.

78) “기사, 준기사가 많은 작업반.” 『로동신문』, 2023년 4월 4일.

79) 나용우 외, 『KINU 북한종합편람』, 서울: 통일연구원, 2025, p. 209.

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ERI 북한농업동향』, 제25권 제2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7-10.

주민에 대한 통치력을 다시 강화하고자 시도 중이다. 둘째, 코로나 기간 국경봉쇄로 민수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sup>81)</sup> 노동자와 직장 단위의 원격대학 운영 역량이 대폭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두 번째 회귀가 의미하는 것은, 원격대학이라는 기술 도입에 북한당국이 품었던 일말의 환상(효율성과 근(현)대화)이 상당 부분 깨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술의 '사회적 조건(적정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북한당국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지도 드러난다. 즉, 학습자 유인을 향상시킬 구조적 정비는 제외하고, 자력으로 대도시와 '모범' 직장을 따라가기 힘든 단위를 분리하여 회귀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지학습받은 원격대학에 비해 제한된 시공간에 집체하므로 직장에서 노동자-학생을 통제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는 김정은 집권기 주민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전반적 통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 VI. 중국 통신대학과의 경로 비교<sup>82)</sup>

북한의 통신대학 제도는 그 형식과 담론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유한 '노동자-농민을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목표와 연결되지만, 실제 전개과정에서는 이질적인 궤적을 보인다.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중국 사례와 비교 분석한다.

중국은 1953년 인민대학교에서 최초의 학위수여 통신과정이 설치되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1949년 신중국 수립 당시 고등교육기관은 205곳에 불과했고 등록생은 12만 명도 되지 않아 고급 인재가 부족했다. 정규 대학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비용·확장성 측면에서 정부는 기존 대학들에 통신과정을 개설하도록 했다. 초기 통신대학은 우편을 중심으로 했으나 1950-1960년대부터 라디오 통신대학, 텔레비전 대학 등이

81) 나용우 외, 『KINU 북한종합편람』, p.231.

82)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이 장의 내용은 모두 다음에서 참조하였다. Chi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Chinese Adult Education Association, *Adult education and learning in China: Development and present situation [National report]*, 2008.

도입되었다. 이는 북한보다 20-30년 앞선 조치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공장·기업·농촌단위에 부설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재직자가 업무 후 야간이나 주말에 공부하도록 조직한 방식으로 당시의 교육 내용은 공산주의 이념, 생산기술, 당의 노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계획경제 내 인력배치와 밀접히 연결된 교육이었다.<sup>83)</sup> 또한 '자습자를 위한 고등교육 국가시험 제도(Higher Education Examinations for Self-taught Learners)'를 설립하여 누구나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학습자는 시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필요한 학점을 누적해, 자격 기준에 도달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 모든 성인고등교육은 중단되었다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2세대 통신대학이 시작되었다. 1979년 2월 중국 중앙라디오 및 TV 대학(CCRTVU, 中央广播电视大学)을 출범시켜 기존의 지역단위 통신대학을 분교화하고 통합체계를 갖추었다. 당시 공산당은 심각한 인재부족과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된 고등교육 복원을 1차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중국 내에서 위성기술이 부상하면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성인 노동자의 고등학력 취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ICT에 기반한 원격 성인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원격고등교육은 1998년 『21세기 교육진흥행동계획』을 기점으로 한다. ICT와 위성을 활용한 원격 네트워크 기반 교육체계는 국가의 전략적 관리 아래 전국에 교육 인프라를 통해 구축되었다. 이 체계는 온라인 강좌, 인쇄 교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하는 동시에 학점제 및 교수-평가 분리 원칙을 도입했다. 또한 2002년 CCRTVU 산하 학습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인터넷과 다양한 콘텐츠, 오프라인 학습지원 등을 결합시키면서, 비대면 자학습 중심의 통신대학(원격대학)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9~2007년 사이 458만의 입학생이 학위 인정 과정에 재학하였다. 방송-TV대학은 2007년 기준, 중앙 1개, 성급 44개, 시급 분교 945개, 현급 작업소 1,842개, 수업장 4만 6천여 곳이 운영되었다.

83) Xiao, J., Kanwar, A., and Du, R., "The Contribution of Open and Distance Education to Higher Education in China." 『Open Praxis』, Vol. 17, No. 1, 2025, pp. 184~202. <https://doi.org/10.55982/openpraxis.17.1.773>.

2012년 7월에는 CCRTVU를 확대한 국가개방대학(国家开放大学, Open University of China)를 출범시켰다. 이는 TV와 라디오에 더해 인터넷 기반으로 고등교육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 윈난의 성급 방송텔레비전대학을 모두 개방대학으로 개칭하고 국가개방대학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인정했다. 2022년에는 국가개방대학 산하에 평생교육 플랫폼, 중국노년대학 등을 출범시켰으며 점차 평생교육, 유연한 학습 시스템, 국제협력, 고령화 사회 대응 등으로 그 목표를 확장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개 국가급 개방대학, 44개 성급 개방대학, 2,744개 학습센터가 있고 학생들은 중앙, 지방, 기업, 구역 수준의 튜토리얼 센터에서 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국 고등교육 등록자의 약 10%가 국가개방대학에 등록되어 있고 2024년까지 총 1,967만명이 원격대학에 진학하였다.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온라인 튜터링(점심시간 활용 실시간 수업, 주제기반 토론, 질의응답, 교사를 위한 활동), 원격리셉션 센터(학업 및 행정 지원, 심리상담, 기술지원), 지역별 오프라인 지원센터, 다양한 소통채널(튜터, 비대면, 전화, 앱 등)과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sup>84)</sup>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다양한 국가의 대학 및 기관과 교류한다. 특히 '중국특색의 개방대학' 구축을 목표하면서 공자학원의 지시를 받아 미국과 뉴질랜드 등의 대학에 온라인 공자학원 및 공자연구센터 등을 설립을 전개하고 있다.<sup>85)</sup>

중국의 이러한 통신대학 발전 경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도 잔존하지만 북한과 비교했을 때 원격대학이 잘 정착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중국은 교육의 기술적 진화와 제도적 유연화, 그리고 개인의 '복지'를 국가적 서사로 흡수하여 통치기획을 정당화하고 현실화하였다. 통신(원격)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의 보완장치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재교육 체계를 연결하는 생애 학습 경로의 일부로 통합되었고,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자율적 주체화'의 장치로도 작동해왔다. 중국당국의 통치적 기획은 억압적이거나 심각한 강제 없이 선택의 자유,

84) <http://en.ouchn.edu.cn/index.php/learner-support>(검색일: 2025.7.3.)

85) <http://en.ouchn.edu.cn/index.php/international-international/partners/1314-michigan-state-university>(검색일: 2025.7.3.)

교육의 다양성, 직업 경로의 유연성이라는 구조적 조건들을 구현한 측면이 있다. 기술-사회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학습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튜터링과 지원 센터, 상담 등의 지원 시스템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함양하며 통치의 목적도 동시달성했다.

반면 북한은 통신대학 제도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신대학의 핵심 전제라 할 수 있는 학습자의 자율성, 내적 동기, 사회적 환류(예: 경력 전환, 임금 향상 등)는 구조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북한은 기술 발전의 흐름에 일정 부분 대응해 원격대학 체계를 도입하였지만, 그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거의 시공간 구조, 즉 ‘현지학습반’ 체계로 회귀하며 학습자의 시·공간적 정주성을 강화해왔다. 특히 노동시장이 협소하고 직업 경로의 다양성이 거의 부재한 구조 속에서, 학습자에게 고등교육이 제공하는 실질적 유인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과 달리 북한은 학습자를 ‘자기조절형 평생 학습자’로 구성하려는 통치기획(예: 평생교육 체계)조차 부재하며, 교육은 철저히 통치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북한 통신대학 사례에서 포착되는 교육과 통치의 교차성은, 표면적으로 ‘자율적 학습’이라는 외피를 부여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학생을 직장 단위로 조직하여 학습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이중적 통치성의 전형인 측면이 있다. 학습자는 실천하는 주체로 호명되지만 실상은 통제 ‘당하는’ 객체로 존재하며, 형식적 자율성과 실질적 규율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통치 매커니즘 속에 위치한다. 그 매커니즘의 논리는 시기에 따라 권리-보은(충성)-인재화(현대성) 등의 다르면서도 유사한 명분에 의해 구성된다. 푸코가 현대적 통치성과 관련하여, 자유의 조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구성하는 권력을 논했던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의 통치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노동자에서 ‘평생학습자’로의 전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인민을 구성해가는 반면, 북한의 통신대학은 반복과 동일, 형식적 수행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상징기획에 가깝다. 통신대학에서의 ‘이중적 통치성’과 관련하여 중국이 일견 자유주의적 형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북한은 필요에 따라 상시 조절하며 회귀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 VII. 결론

북한 통신대학은 1948년 도입 이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지만, 그 진화의 궤적은 직선적인 진보라기보다는 반복적 회귀와 조정의 연속이었다. 자학습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었음에도, 통신대학은 형식상 근대적 제도의 외피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현지학습반’으로 회귀했다. 물론, 교육의 현장성은 학습자와 교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성을 갖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 현지학습반 체계는 직장에서의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신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과 괴리된 통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자율성을 축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회귀를 단순한 제도 실패나 기술 부적응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연구는 오히려 이 회귀가 북한식 통치 전략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적 보완기제이자, 통치력 유지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전략적 조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즉, 통신대학의 반복적 회귀는 통치성의 실현 조건—학습자의 내적 동기, 시간 자율성, 교육성과의 사회적 환류—이 구조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택하는 최소한의 통치력 회복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통신대학은 당초 노동자-학생의 자발적 학습을 통해 충성심 있는 기술 간부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설계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학습자의 자율성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통제와 규율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 기술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술은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형식으로만 채택되었고, 구조적 지원 없이 개인과 직장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자율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강한 규율성을 유지하는 ‘이중적 통치성’의 전형이다.

2024년 재등장한 현지학습반은 이러한 통치 양식의 집약적 표현이다. 원격대학이라는 기술기반의 자율적 학습 체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단위에서 물리적으로 학습자를 집제하는 방식으로 회귀한 것은 자율성과 비대면

성이라는 제도적 유연성이 북한의 통제 중심적 통치구조와 본질적으로 충돌함을 방증한다. 사회주의 맥락을 공유하는 중국의 경우, 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제도화하고, 복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기조절형 인민'을 구성하려는 통치 기획을 추진한다. 북한은 통신대학을 주로 '노동자 통제'와 정치적 의례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학습자를 '실천하는 주체'가 아닌 '동원되는 객체'로 위치시킨다. 통신대학에서 중국이 자유주의적 방식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은 이를 상시 조절하는 양상이다.

결국, 북한 통신대학의 반복적 회귀는 단순한 운영 실패가 아니라, 통치력이 약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통치의 안정성과 권위 유지를 위해 반복되는 통치 전략의 표현이다. 기술과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차원적 통치성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타율성과 물리적 통제로 환원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대학은 푸코식 통치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사한 권위주의 국가 중국보다 더 극명하게 이중적 통치성을 드러내는 양태로 전개되어 왔다.

현재의 통치적 목적이 지속된다면, 통신대학(원격대학)은 자율성이 아닌 타율성을 강화하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치력 회복을 강조하며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 단위에서 원격대학을 현지학습반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원격대학의 운영방식도 자율성보다 감시, 통제, 규율을 강화할 확률이 높다. 또한 노동자-학생들 역시 실력의 함양, 직업능력과 기회로의 연계가 아니라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명시적으로 받기만을 목적하거나, 직장의 강제 권유에 마지못해 따르는 비자발적 선택의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향후 통치적 전환이 부재한 이상, 북한의 통신대학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보다 당국 주도로 그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문헌

- 김경무, “통신대학을 이들처럼 하자.” 『로동신문』, 1985. 05. 03.
- 김상철, “단평: 통신대학사업에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자.” 『로동신문』, 1957년 10월 6일.
- 김상현, “소련초기 교육제도변화의 특징 연구: 혁명 후~스탈린 집권말기까지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중소연구』, 제40권, 2호, 2016.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1978. 10. 01.).”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출판사, 1987, pp. 436~456.
- 김지수, “북한 김정은 정권기 원격교육 현황 분석: 고등교육 수준의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Vol. 19, No. 4, 2023 pp. 32-56.
- 김지수, “북한의 성인대상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을 통해 드러난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Vol. 5, No. 2, 2009, pp. 183~206.
- 김철, “훌륭하게 꾸려진 교육 조건.” 『교육신문』, 2001년 10월 11일.
- 나용우 외, 『KINU 북한종합편람』, 서울: 통일연구원, 2025.
- 리광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주체의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리동휘, “단평: 교원자질향상을 위하여 통신사범교육사업을 일층 강화하자.” 『교원신문』, 1959년 12월 12일.
- 리순희, “통신대학에서 포착한 주요문제.” 『로동신문』, 1987년 9월 29일.
- 리영환, 『조선교육사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리영환, 『조선교육사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미셸 푸코 지음, 오트프랑 · 심세광 · 전혜리 · 조성은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서울: 난장, 2011.
- 박원용, “소련 고등교육 체제의 기본구조: 1920~1930년대.” 『역사문화연구』, 제60권, 2016.
- 백영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80년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이끄신 현명한 령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역사, 법률』, Vol. 495, 2015.
- 서광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발전력사.” 2016년 1월 23일, <http://www.ryongnamsan.edu.kp/univ/ko/research/articles/9de6d14fff9806d4bcd1ef555be766cd>(검색일: 2025.02.18.).

- 안중현, 『통신대학의 조직형태와 방법(교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3.
- 우일, "교수자의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자체학습방식이 결합된 원격교수안편성방법." 『고등교육』, 제212권, 2019, p. 34.
- 잉그리드 미테, "소련형 대학의 노동자학부." 『아시아리뷰』, 제7권 1호, 2017.
- 전봉윤, "학습은 첫째가는 혁명임무." 『로동신문』, 1965년 10월 22일.
- 조정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pp.81~136.
-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ERI 북한농업동향』, 제25권 제2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일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중시하여야 할 문제." 『로동신문』, 2024년 7월 1일.
- 김창호, 『조선교육사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궤도우로 달리는 대학》-통신대학차." 『조선중앙통신』, 2006년 7월 6일.
- "1955-1956학년도 각 통신대학학생 모집요강." 『로동신문』, 1955년 6월 1일.
- "1956-1957학년도 김책공업대학 통신학부 학생 모집요강." 『로동신문』, 1956년 4월 1일.
- "1960-1961학년도 각 대학 본학부의 야간에 수업하는 학급 및 통신학부 신입생 추가모집요강." 『민주조선』, 1960년 10월 22일.
- "각 통신대학들에서 하기 등교수업." 『교원신문』, 1956년 6월 23일.
-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로동신문』, 2017년 10월 3일.
- "기사, 준기사가 많은 작업반." 『로동신문』, 2023년 4월 4일.
- "기술대학들에 통신 기술학부신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7일.
- "기술력량강화에서 증시한 현지학습반." 『로동신문』, 2024년 2월 4일.
- "대학이 학생들을 찾아간다." 『민주조선』, 1991년 7월 13일.
- "류다른 《학부형총회》." 『로동신문』, 2024년 1월 22일.
- "보통교육성과 산학대학들에서 조선대학 통신학부 제3회 졸업식을 축하." 『로동신문』, 1967년 8월 19일.
- "소개." 『조선중앙통신』, 1998년 10월 22일.
- "실정에 맞게 통신대학사업을 강화하여." 『민주조선』, 1982년 12월 24일.
- "우리나라 교육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조선대학교 통신학부 제4회졸업식을 열렬히 축하." 『로동신문』, 1968년 8월 14일.
- "원격교육센터를 새로 내왔다." 『교육신문』, 2007년 1월 25일.
- "위대한 권리." 『소베트 신보』, 1949년 3월 3일.
- "이동통신망에 의한 우리식의 원격교육체계 확립." 『조선의 오늘』, 2015년 5월 28일.
- "재일본조선인통신대학협회결성 열둛." 『민주조선』, 1973년 4월 21일.

- “통신대학.” 『쏘베트 신보』, 1949년 3월 3일.
- “통신대학사업을 강화하여.” 『로동신문』, 1982년 9월 1일.
- “통신대학의 훌륭한 모범: 단천지구광업연합기업소 통양광산 금산생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1979년 9월 29일.
- “통신종합대학-인민대학습당.” 『민주조선』, 1984년 10월 19일.
- Chi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Chinese Adult Education Association, *Adult education and learning in China: Development and present situation* [National report], 2008.
- Dean, Mitchell, “The Concept of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Today.” *Global Society*, Vol. 39, No. 1, 2025, pp.14~15, DOI: 10.1080/13600826.2024.2362739.
- Dean, Mitchell,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2010.
- Heeks, R., “Information Systems and Developing Countries: Failure, Success and Local Improvisations.”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8, No. 2, 2002, pp. 101~112. <https://doi.org/10.1080/01972240290075039>.
- <http://en.ouchn.edu.cn/index.php/learner-support>(검색일: 2025.7.3.)
- Knowles, 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Cambridge, 1980.
- Xiao, J., Kanwar, A., and Du, R., “The Contribution of Open and Distance Education to Higher Education in China.” 『Open Praxis』, Vol. 17, No. 1, 2025, pp. 184~202. <https://doi.org/10.55982/openpraxis.17.1.773>.
- Zhang, S., “Chinese-as-a-foreign-language learners’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flipped/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A descriptive study.” *Studies in Self-Access Learning Journal*, Vo. 10, No. 2, 2019, pp. 181~204. <https://doi.org/10.37237/100205>.
- <http://en.ouchn.edu.cn/index.php/learner-support>(검색일: 2025.7.3.).
- <http://en.ouchn.edu.cn/index.php/international-international/partners/1314-michigan-state-university>(검색일: 2025.7.3.).

Abstract

Learning in Reverse: The Regressive Recurrence of North Korea's  
Correspondence University and Its Dual Governmentality

Park, Minju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rofessor)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trajectory and cyclical recurrence of North Korea's correspondence universities through the lens of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Introduced in 1948, the correspondence university ostensibly provided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to workers. However, rather than fostering autonomous learning, the system repeatedly reverted to the "on-site study group" format. In a context lacking techno-social appropriateness, this recurrence reflects not institutional failure but strategic recalibration to sustain state control. Compared to another authoritarian regime, China, North Korea's model reveals a more explicit dual structure of governmentality. While discourse on autonomous learners remains minimal, mechanisms of worker-student control are overtly emphasized. Thus, despite its appearance as a modern educational system, the correspondence university has historically functioned as a governance tool. The post-COVID resurgence of this model suggests that future developments will likely reinforce coercive, rather than autonomous, structures.

Keywords: Distance University, Dual Governmentality, Regression,  
North Korea, Adult Higher Education, Remote University

투고일: 2025년 7월 4일, 심사일: 2025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8월 20일